임을 위한 행진곡 '진실게임' … 누구 말이 맞나

보훈처 "5월단체들 본행사 때 뺄 것 동의"

5월단체 "아니다, 이야기도 나눈 적 없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애초 양측의 이해 아래 식전 행사에 배치됐다.(국가보훈처)

아니다, 식전행사 배치 이야기는 나눈 적도 없다.(5월 단체)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식의 양분을 불러온 '임을 위한 행진곡'의 식전 행사 배치를 놓고 국가보훈처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관련단체 간의 진실공방이 뜨겁다.

기념식이 둘로 갈린 것은 5월 단체들이 18일의 30주년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본 행사가 아닌 식전 행사에 배치할 경우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국가보훈처가 그대로 식전행사에 배치하면서 비롯됐다.

국가보훈처와 5월 관련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지난달 2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유족회 인근 사무실에서 만나 30주년 기념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식전 행사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5월 관련단체가 사전에 동의했는 지 여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5·18부상자회 신경진 회장은 "당시 국가보훈처로부터 기념행사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는데 경과보고를 영상보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눴을 뿐"이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얘기는 나눈 적도 없고 (식전행사 배치에 대해)동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받은 보고서에도 '식전 행사'라는 내용만 명시돼 있었을 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식전 행사에 배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5월 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5월 관련단체에 보여준 보고서에는 '식전 행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치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이형주 계장은 "보고회의 때 참석자들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식전에 배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보여줬다"면서 "문제가 있을 땐 바로 이의 제기할 것을 당부했는데, 기한일(지난달 29일)까지 어떤 얘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회의 도중에 참석자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분명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예년 본행사 제창 순서에 들어 있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식전행사에 배치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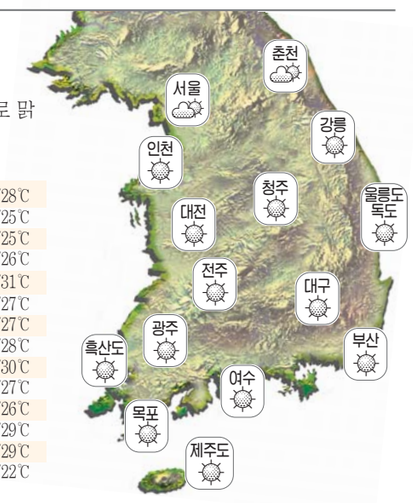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5분 해짐 19시 33분 달뜸 11시 21분 달짐 00시 17분

땡볕 조심!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음	15/28℃
목 포	맑음	14/25℃
여 수	맑음	16/25℃
완 도	맑음	14/26℃
구 례	맑음	12/31℃
해 남	맑음	13/27℃
장 흥	맑음	13/27℃
고 흥	맑음	13/28℃
순 천	맑음	15/30℃
영 광	맑음	13/27℃
진 도	맑음	14/26℃
전 주	맑음	13/29℃
남 원	맑음	10/29℃
흑산도	맑음	12/2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0.5~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매우높음	경고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먼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0.5~1.5m

	밀물	썰물
목포	06:49 19:04	12:12 --:--
여수	01:32 13:56	07:47 20:0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날 씨						
최저/최고	16/29	17/25	18/23	16/24	15/27	16/28

광주댐 높이기 사업 반발

2.6m씩 … 광주 효령동·담양 남면 일대 수몰 위기

식영정·환벽당·호수생태원도 영향 불가피

농어촌기반공사가 광주댐을 일률적으로 2.6m씩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몰 가능성이 높은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광주호의 수위가 상승할 경우 인근의 가사문학관과 호수생태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담양군과 광주시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19일 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4대강 사업 일환으로 갈수기 수량 확보와 영산강 침수피해 방지 등을 위해 기존 25m 높이의 광주댐을 27.6m로 높이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업의 공사비는 모두 700억원으로, 농어촌공사측은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온 뒤 인근 주민 의견수렴,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시 북구 충효동과 담양군 남면 일대 주민들은 이 같은 광주댐 높이기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호 주변 상당수 지역들이 수몰될 것이라며 생존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담양군 남면에 거주하는 이모(53)씨는 "이곳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댐을 높여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쫓겨나야 하느냐"고 말했다.

광주호 주변에는 식영정, 환벽당 등 유서 깊은 문화재가 즐비하며 가사문학관도 자리하고 있다. 또 광주호 상류 부근에는 광주시민과 담양군민들의 휴식처이자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호수생태원이 조성돼 있는 등 각종 시설이 집중돼 있어 지방자치단체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 북구 충효동과 담양군 고서면·남면에 걸쳐 있는 광주댐은 영산강유역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76년 9월 완공됐으며, 댐 제방 길이는 505m, 총저수량는 1740만t 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남도 전통음식 만들기 19일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열린 전통음식 만들기 강의에 참석한 주부들이 상추불뚝김치·명태조림을 만든 뒤 맛을 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제약회사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 금지

광주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금지' 를 선언했다. 이번 광주시의사회의 조치는 전남 등 의사회에 이어 전국서 8번째이다.

광주시의사회 이정남 회장은 19일 "어제(1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죄'가 통과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정율성 생가 논란 종지부 찍을까

고증위 곧 공식 확정

지난 2004년 광주시 남구청이 정율성 기념사업을 시작하면서 불거진 '생가 논란'이 6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구성된 '정율성 선생 생가복원을 위한 고증위원회(이하 고증위원회)'가 이날 오전 6차 회의를 가졌으며,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 7차 위원회에서 생가터를 공식 확정할 방침이다.

고증위원회 위원은 지역 내 역사학자와 음악전문가 등 9명으로, 이들은 생가터를 남구 양림동 79번지이라고 주장하는 남구청과, 동구 불로동 히딩크호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정씨 종친회 등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박선홍 고증위원회 위원장은 "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생가터가 어디인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며, 마지막 조율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